

# 일타강사된 배우 정경호 “수학풀이 너무 어려워 통으로 외웠다”

tvN 종방극 ‘일타스캔들’의 ‘최치열’ 맡아 열연  
전도연과 로맨스 연기 ‘영광’...17%로 막 내리

배우 정경호(40)는 tvN 종방극 ‘일타스캔들’의 ‘최치열’ 그 자체였다. 치열은 1조원을 버는 일타강사지만, 불면증과 섭식장애에 시달릴 정도로 까칠하고 예민했다. 정경호 역시 10년 가까이 이런 역을 맡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굳어졌다. 전작인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2022)에서 에이즈환자도 연기했지만, 이번에는 섭식장애 설정 탓에 걱정이 컸다. “늘 해왔던 경계선에서 너무 발악하는 게 아닐까 싶었다”면서도 “치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만족해했다.

“8-9년 가까이 까칠하고 밥도 안 먹는 역을 연속적으로 맡았는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 일단 치열과 달리 난 1조원이 없다.(웃음) 어느 순간 진지하게 ‘왜 내가 바삭 마른 몸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고민했다. 10년간 만난 (그들 ‘소녀시대’) 최수영씨도 ‘늘 마른 몸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고 하더라. 30대 초반에 받았던 까칠한 역과 다르게, 치열은 마흔이 된 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게 느껴졌다. 내가 부여잡고 ‘변해야지’라고 생각하기 보다, 나름대로 해왔던 과정 속에서 달라지지 않았나 싶다. 스트레스가 좀 풀린 것 같다.”

이 드라마는 임시 지옥에 뒤늦게 입문한 ‘국가대표 반찬가게’ 사장 ‘남행선’(전도연)과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에서 별이 된 일타강사 ‘최치열’(정경호)의 로맨틱 코미디다. 1회 4.0%(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 16회는 17%로 막을 내렸다. 요즘 로맨틱 코미디물 인기가 주춤했는데 “오�히려 장르물에 지친 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것 같다. 이 드라마도 스텔라가 있었지만, 장치적인 요소였다”며 “어디서 봤을 뻔한 내용인데 작가님과 PD님, 선배들이 캐릭터를 살아있게 표현해 좀 더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도연(50)과 호흡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고 털어놨다. “7개월 간 영광스러

운 순간이었다”며 “선배 말투, 호흡, 웃음소리 등을 보며 ‘30년간 쌓아온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느꼈다. 투표를 찍고 너무 좋아서 PD님과 모니터로 다시 보곤 했다. 선배는 연기할 때 거짓말을 안 하고, 늘 행선이가 돼 말하고 표현한다. 극본 속지는 기본이고, 늘 현장에 빨리 온다. 다 외워 와서 현장에선 극본을 안 보더라. 많이 배웠다”고 귀띔했다. “이번 작품은 정말 노력을 안 했다. 7개월간 작가-PD님이 만들어준 놀이터에서 놀았다.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경호는 치열의 이면성에 매력을 느꼈다. 촬영 전 14부까지 극본을 받았으며 “최고의 수학 강사로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 섭식장애를 앓고 텅 빈 집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느냐. 치열의 ‘하찮음’을 보여주면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일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치열은 행선이 만든 도시락 만큼은 맛있게 먹었다. 이 부분이 가장 초점을 뒀다며 “내가 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왜 이리까? 싶었다”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캐릭터에 어떻게 접근할지 막막했다. “일타 강사라는 걸 아예 몰랐기 때문”이다. “일타라는 단어도 몰랐고, 수학은 더 더욱 몰랐다”며 “대치동 ‘맘카페’ 등 사교육도 몰라서 0부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일타강사 수업 영상부터 찾아봤고, 학생들을 집중 시키는 방법 등을 연구했다. 칠판을 사서 집에서 수업 연습을 했다. “수학공식은 아예 몰라서 ‘다 외우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근데 칠판에 쓰는 건 다른 세계더라. 내가 칠판을 보면서 쓰는 건 하겠는데, 학생들을 보면서 말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렴한 칠판을 구입했고, 자분해주는 안가림 선생님이 문제를 풀이를 써 놓고 가면 내가 덧칠했다. 두 달 정도 연습했다”고 귀띔했다.

“수학풀이 신은 너무 어렵고 긴장이 많

이 됐다. 수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3일 정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통으로 외웠다. 목동 논술학원을 빌려서 촬영할 때 학생들이 100명 넘게 왔다. 그 앞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속옷이 다 찢을 정도로 긴장했다. 분명히 답을 외워서 풀이했는데, 보조 출연한 학생이 ‘그거 아닌데요?’라고 하더라. 문제 과정 속 오류가 있었다. 그 날이 첫 촬영이었는데, 이후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했다.”

연예인과 일타강사 삶이 비슷해 공감한 부분도 많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자신의 삶이 없고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살더라. 자문 선생님께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고 물으니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라고 하더라”면서 “우리도 많이 사랑 받는 작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시청자들을 납득 시키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비슷하다.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점도 닮았다”고 설명했다.

정경호는 어느덧 데뷔한 지 20년이 됐다. 2003년 KBS 공채 텔런트로 데뷔, 묵묵히 스펙트럼을 넓혔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인 정영영(71) PD 영향을 받아 ‘늘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신원호 PD, 이우정 작가와 ‘슬기로운 감빵·의사생활’(2017~2021) 시리즈를 함께 하면서 “좋은 사람들이 만든 좋은 드라마의 선한 영향력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신 PD님과 이 작가님 작품에는 악역이 없고, 선한 내용을 감동적으로 구현하지 않느냐”면서 “두 분과 4년을 같이 작업하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다.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가 무엇이야고 몰으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슬의생 ‘김준완’이라며 “오랫동안 김준완으로 살았다. 정경호가 김준완인지, 김준완이 정경호인지 모를 정도다. 내 인생의 가장 의미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다음 달부터 영화 ‘보스’(감독 라희찬)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썸 버티고 싶다고 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물어보는데, 난 옛것처럼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매 순간 최



선을 다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이 좋다. 그 순간이 쌓여 20년이 됐고, 전도연 선배와 연기도 하게 됐다.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계속 안 쉬고 작품을 했다. 내가 계속 성장하는 걸 작품을 통해 풀었고, 다른 역할

을 연기하면서 변화에 만족한 것 같다. 기회가 되면 조금 쉬면서 나를 채우고, 좀 더 단단해져야 수월하게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뉴스

## 방탄소년단 ‘프루프’, 美 ‘빌보드200’에 가장 오래 머문 K팝 음반 4위

1위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등 5위까지 모두 BTS 음반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3월 11일 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가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74위에 오르며 38주 연속 차트인을 기록했다.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이 공백기임에도 꾸준히 인기가. ‘빌보드 200’에 가장 오래 머문 K팝 앨범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방탄소년단의 다른 앨범인 스페셜 음반 ‘BE’(2020)가 기록한 37주 기록을 갱신했다.

현재 해당 기록의 1~5위는 모두 방탄소년단 음반이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2018)가 100주로 1위다. 정규 4집 ‘멜 오브 더 솔 : 세븐’이 95주, 미니 5집 ‘러브 유어셀프 승 하’(2017)가 45주

로 각각 2, 3위다. ‘BE’가 5위다.

이와 함께 ‘프루프’는 이번 주 차트에서 ‘월드 앨범’ 3위, ‘톱 커런트 앨범’ 63위에 자리했다.

방탄소년단은 개별 활동으로도 빌보드 세부 차트에서 선전을 이어 가고 있다. RM의 첫 공식 솔로 앨범 ‘인디고(Indigo)’는 ‘월드 앨범’ 11위, ‘톱 커런트 앨범’ 34위, ‘톱 앨범 세일즈’ 67위에 랭크됐다. 진의 첫 솔로 싱글 ‘디 에스트로넛(The Astronaut)’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에 7위로 재진입했다.

지민이 그룹 ‘빅뱅’ 멤버 겸 솔로가수 태양과 함께 부른 ‘바이브(VIBE)’는 ‘글로벌(미국 제외)’ 194위에 자리했다. 정국과 미국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찰리 푸스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는 ‘글로벌(미국 제외)’ 199위로 다시 차트인했다.

이번 주 빌보드 차트는 방탄소년단을 비롯

하이브 레이블즈 소속 팀들이 유독 두각을 나타냈다.

방탄소년단과 함께 빅히트 뮤직 소속인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도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TEMPTATION)’도 ‘빌보드 200’에서 ‘장기 흥행’ 청신호를 켜었다.

이번 주 ‘빌보드 200’ 차트에서 32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11일 자 ‘빌보드 200’ 차트에 1위로 진입했던 ‘이름의 장: 템테이션’은 이후 3위, 10위, 12위에 랭크된 데 이어 5주 연속 상위권에 자리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빌보드 200’ 자체 최장 기록은 전작인 미니 4집 ‘미니스트 2: 서스테이즈 차일드’로 세운 14주 연속 진입이다.

또한 ‘이름의 장: 템테이션’은 이번 주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5주 연속 1위를 지켰고, ‘톱 앨범 세일즈’와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는 각각 4위, ‘테이스트메이커 앨범’ 차트에서는 20위에 올랐다.

전통적인 방식의 방송 점수 등을 포함하지 않고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을 토대로 순위를 정하는 ‘글로벌 200’에서 역시 하이브 걸그룹 강세가 이어졌다.

특히 어도어 소속인 뉴진스의 활약이 더 돋보였다. 지난 1월 발매한 싱글 ‘OMG’의 타이틀곡 ‘OMG’가 19위, ‘OMG’ 선공개곡인 ‘디토’가 28위, 데뷔곡인 ‘하이프 보이’가 81위다. 뉴진스와 같은 하이브 레이블즈 소속으로 이 팀과 선의의 경쟁 중인 ‘르세라핌’의 ‘안티프리저일’은 해당 차트에서 127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주 ‘빌보드 200’, ‘핫100’, ‘글로벌 200’ 정상은 모두 바뀌었다.

콜롬비아의 팝스타 카롤 지(Karol G)의 앨범 ‘마나나 세라 보니토(Manana Sera Bonito)’가 진입 동시에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 캐나다 R&B 슈퍼스타 더 위켄드와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와 협업한 ‘다이 포 유(Die For You)’가 5개단 역주행해 ‘핫100’ 1위에 올랐다. 카롤 지가 역시 콜롬비아 출신 팝스타 사키라와 협업한 ‘TQG’가 ‘글로벌 200’ 1위다.

## BTS 지민, 첫 솔로 ‘페이스’ 무드 포토 공개



그들 ‘방탄소년단(BTS)’의 지민이 첫 솔로 앨범 ‘페이스(FACE)’의 프로모션 콘텐츠 방송에 시동을 걸었다.

8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지민은 이날 방탄소년단 SNS에 ‘페이스’의 무드 포토를 게재했다. 공허함이 느껴지는 방에 홀로 선 지민의 실루엣이 모노톤으로 표현돼 눈길을 사로잡는다.

본연의 자신을 마주하게 된 지민의 모습을 담은 신보 ‘페이스’의 메시지처럼 무드 포토가 어딘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민의 뒷모습을 그려 이번 앨범을 통해 그가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더욱 궁금하게 한다.

오는 10일과 11일에는 각각 ‘하드웨어 버전(Hardware ver.)’과 ‘소프트웨어 버전(Software ver.)’의 콘서트 사진을 연이어 공개, 지민은 신보 발매에 앞서 다채로운 콘서트로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는 온전히 자신을 마주하고 아티스트 지민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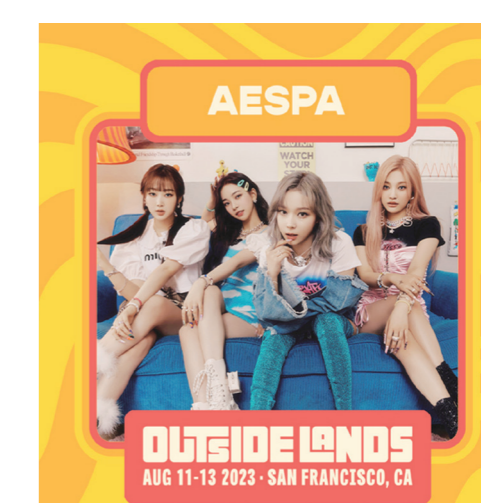
타이틀곡인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는 신스 팝(Synth Pop) 장르로, 강렬한 신스 사운드와 드림 사운드에 지민의 애절한 음색이 돋보이는 곡이다.

## 에스파, 美 페스티벌 잇단 K팝 그룹 첫 출연

‘메타버스 그룹’ 에스파(aespa)가 미국의 대형 야외 음악 축제 ‘아웃사이드 랜드 뮤직 & 아트 페스티벌(Outside Lands Music & Arts Festival)’ 무대에 오른다. K팝 그룹 최초다.

8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스파는 오는 8월 11~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파크(Golden Gate Park)에서 열리는 이 축제 무대에 오른다.

‘아웃사이드 랜드 페스티벌’은 6개의 무대에서 총 90여 개의 공연과 다양한 설치 미술 작품 및 이벤트, 각 지역 대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부스 등이 펼쳐진다. 매년 22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으는 미국의 대표적인 연예 야외 음악 페스티벌이다. 엘튼 존, 빌리 아일리시, 더 위켄드, 재닛 잭슨, 라우브, 시저 등이 출연했다.



올해엔 에스파 외에 켈트릭 라마, 오데자, 라나 델 레이 등이 이름을 올렸다.